

오징어 게임

- 운동장 -

우리 동네에선 그 놀이를 오징어라고 불렀다. 마치 오징어를 닮은 그림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다. 규칙은 간단하다.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공격과 수비 두 편으로 나뉜다. 게임이 시작되면 선 안의 수비자는 두 발로, 선 밖의 공격자는 깡깡이 발로 움직여야 한다.

공격 팀: 니네 엄마!

하지만 공격자가 기회를 노려 오징어의 허리를 가로지르면 두 발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공격 팀: 암행어사!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걸 암행어사라고 불렀다. 최후의 전투를 할 준비가 되면 공격자들은 오징어 그림의 입구로 모인다.

공격팀: 가!

승리하기 위해선 공격자는 오징어 머리 위의 작은 선 안을 발로 짚어야 한다. 이 때 수비자에 밀려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그래, 죽는다.

공격팀: 만세!

결승점을 밟으면 만세라고 외친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었다.

- 집 -

엄마: 응.

기훈: 이거 뭐야? 나 주는 거야?

엄마: 잉, 니 오늘 가영이 생일인 거는 알제?

기훈: 응, 알지.

엄마: 까먹지 말고 이따가 가가 저녁이라도 한 끼 사먹이라.

기훈: 아이 요즘 물가가 얼마데 이걸 가지고 뭘 사먹여?

엄마: 가영이 가가 치킨 좋아 안 하나? 닭이나 한 마리 사먹이고 와.

기훈: 애 치킨만 먹여? 생일인데 선물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조금만 더 줘봐.

엄마: 돈 없다.

기훈: 아, 돈이 왜 없어? 내가 대리 뭘 것도 다 갖다줬잖아.

엄마: 아이고 그깟 놈의 돈. 야, 너 대출 받은 한 달 이자도 안 된다. 아이구.

기훈: 아, 그건 이렇게 살아서 다 못 값어. 그러게 쓸 건 좀 쓰고 살자.

엄마: 어이구.

기훈: 아, 그거 좀 그만 해 그러구.

엄마: 어이구 마, 그릇이나 물에 담가놔.

기훈: 맨날 허리 아프다면서 몇 분이나 번다고 그래?

-은행-

기훈: 어? 아이, 내 생일 맞는데.

기훈 친구: 비밀 번호 바꾸셨네. 니네 엄마가 드디어 널 버렸다야. 하하하.

기훈: 씨, 어어. 아 씨, 이 노인네 뭘로 바꾼 거야?

기훈 친구: 니 엄마 생일 같은 거 해봐.

기훈: 엄마 생일? 엄마 생..

기훈 친구: 모른다 모른다. 지 엄마 생일 모른다. 에라 이 호로 새끼야.

기훈: 아이 씨발 병신아, 알어. 노인네가 매년 그.. 음력을 쇠어 가지구, 매년 바꿔서 그런 거야. 병신 새끼 씨발.. 알지도 (못하면서)...

기훈 친구: 그럼 음력을 쳐보든가.

기훈: 아, 씨. 아, 나 정말. 아, 씨.

기훈 친구: 야야야야, 한 번만 더 틀리면 거래 정지야. 생각 잘 해. 뭐 다른 거 없어?

기훈: 와, 하하하.

기훈 친구: 너 뭐 했어? 뭐 했어?

기훈: 오늘 우리 딸 생일. 아, 요즘 노인네가 나보다 손녀를 더 끔찍히 챙긴다니까. 아이, 참.

-경마장-

기훈 친구: 9 번 명기 대가리 확실하대매.

기훈: 아, 병신 새끼 씨. 좋은 말을 데리고 하지. 피똥을 싸네 증말 씨.

안내 방송: 알려드립니다. 제 10 경주회 마권 발매가 마감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거 좀 빨리 좀 합시다 좀. 이봐요.. 당신 뭐 하는 (거요)?

기훈: 아,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생각 좀 하게.

기훈: 그렇지! 어.

기훈 친구: 달려봐!

기훈: 어 어. 어, 그래 돌아. 어, 빨리 돌아. 돌아. 나와 나와 나와. 더 더 더 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왔어! 왔어!

기훈 친구: 아 중간에 왜 튀어나와?

기훈: 내가 뭐랬어? 오늘 우리 딸 생일이라고 했잖아 6 월 8 일. 6 8!

- 경마장 창구 -

창구 직원: 456 만 원입니다.

기훈: 네,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한잔 사드세요.

기훈 친구: 난 안 주냐?

기훈: 야, 우리 엄마 돈부터 채워 넣어야지. 여기 ATM 어딴냐?

- 전화 통화 -

기훈: 아빠가 저기.. 학원 앞으로 데리러 갈게. 하하하, 뭐 치킨? 야, 그런 거 말고 더 비싼 거도 괜찮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적어놔. 응?

응응응.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말씀만 적고 쉬는 시간에 적어놔. 알았지?

알았어. 일곱 시. 생일 선물은 과연 뭘까요? 기대하시라. 너 진짜 깜짝 놀...

사채업자 1: 야, 기훈아!

사채업자 2: 어이~ 야, 오랜만이네.

기훈: 어 가영아, 아빠도 사랑해.

사채업자: 야야야야야. 잡아! 잡아!

기훈: 아, 미안해요. 학생, 괜찮아요? 아, 미안해요.

사채업자: 저 새끼 잡아! 야 이 새끼야, 거기 서! 거기 안 서?

- 화장실 -

기훈: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 저..저 돈 있어요.. 돈 있어요.. 돈 있어요.

사채업자: 정말? 근데 왜 토겼어?

기훈: 아 그게요.. 선생님 번거로우실까 봐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 드릴려고 했거든요.

사채업자: 어휴 자식, 기특하네. 그래서 얼마 있는데?

기훈: 4 백요. 일단 이거 받으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음 달까지 꼭...

사채업자: 어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사채업자: 아이구! 아~ 달짝지근하다. 아 그동안 내 돈으로 맛난 거 많이 드셨나 봐.

기훈: 돈이 있었거든요. 아까.. 아까 6, 8.. 6, 8 이 들어와서 돈이 정말 여기 있었거든요.

사채업자: 너, 코피가 왜 잘 나는지 알아? 코 안에 모세 혈관이 많아서 그래.

기훈: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사채업자: 피맛도 좋던데 한 사발 받아다가 오늘밤 선지국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기훈: 값올게요. 값올게요. 정말이에요. 값올게요.

사채업자: 아이, 새끼. 아 마음 약해지게 왜 울고 지랄이야? 아, 내가 잔정 많은 건 어떻게 알아 가지고. 자, 눈물 닦고 여기 지장 찍어! 다음 달까지 못 갚으면 여기 신장 하나랑 여기 안구 하나 대신 가져간다. o.k? 왜 싫어?

기훈: 으, 아 아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인주..

사채업자: 아, 거기 나오네. 자연산 인주.

기훈: 예? 아, 네.

사채업자: 그래 그래, 거기 꼭.. 잘 했어. 한 달이야. 몸 간수 잘 해!

기훈: 아 저기.. 선생님! 아 저 죄송한데 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될까요?

사채업자: 아이.. 아이 새끼.

- 경마장 창구 -

기훈: 저기요. 죄송한데 아까 드린 만 원 좀...

- 뽕기삽 (뽕꼬팡) -

기훈: 야아, 씨. 아-. 아. 카. 아이, 아이.

아이: 아저씨, 그렇게 생각 없이 아무거나 집으니까 안 되죠.

기훈: 너 좀 뽕냐?

아이: 잘 들었어.

기훈: 아이고.
잘 했다. 잘 했어, 잘 했어. 잘 했다.

- 포장마차 -

기훈: 아, 이거? 이거 왕모기한테 물린 거야. 아 요즘 모기가 얼마나 독한지.. 아으.

가영: 아빠, 싸움하는 건 아빠 자운데 맞고 다니지는 마.

기훈: 아빠가 미안해. 가영이 더 맛있는 거 사줄라고 그랬는데...

가영: 괜찮아. 어제 엄마랑 새아빠랑 스테이크 하우스 갔었어.

기훈: 스테이크? 아, 그랬구나.

가영: 근데 난 떡볶이가 훨씬 더 맛있어. 엄마가 이런 거 불량식품이라고 못 먹게 하거든.

기훈: 먹어, 먹어! 아, 맞다. 아빠가 가영이 생일 선물 사왔지롱.
야, 너 알지 여자도 요즘 군대 많이 가는 거.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은 남자 여자가
다 똑같이 평등한 세상이야.
가영이 너도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아이, 불까지 나오네. 하하하하하하.
야아, 진짜 같다야. 그치 응?

가영: 근데 이거 엄마가 보면 아빠 또 혼날 것 같은데.

기훈: 아, 그런가? 야, 그럼 이거 너 더 클 때까지 아빠가 갖고 있어야겠다.

가영: 그걸로 담배는 피지 말고.

기훈: 아빠 담배 끊었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가 담배도 꼭 끊고 내년 생일에는 진짜 좋은 선물을 사줄께. 가영이 약속.

가영: 내년?

기훈: 너 작년 생일 생각해 봐. 올해도 금방 생일 됐지? 내년 생일도 금방 와.

가영: 아빠!

기훈: 응, 뭐?

가영: 아니야. 응.

기훈: 그래, 더 먹어 더 먹어. 떡볶이 더 먹어. 아줌마 여기 천 원어치만 더 주세요. 그.. 어묵 좀 많이
섞어서.

- 아파트 입구 -

가영이 엄마: 왜 이렇게 늦게 데려와? 애 옷도 얇게 입었는데.

기훈: 아이, 졸립다고 업고 오느라.. 아이, 10 분 늦었다 10 분.

가영이 엄마: 그러게 내가 차로 데리러 간다고 했잖아.

기훈: 아, 그만 하자. 애 생일이다. 으이.

가영이: 엄마...

가영이 엄마: 가영아, 내려.

기훈: 아, 내 여기 엘리베이터까지 업고 갈께.

가영이 엄마: 버릇돼. 내려. 가영아 내려.

기훈: 아, 참.. 정말.

가영: 아빠, 안녕.

기훈: 어, 들어가. 들어가.

- 지하철 역 -

기훈: 아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잠..잠..아 잠...

양복남: 선생님, 시간 좀...

기훈: 예수 안 믿어요.

양복남: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선생님에게 좋은 기회를 드리고자...

기훈: 우리집 불교 믿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라구.

양복남: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기훈: 뭐야? 잡상인이야? 요즘 상술이 아주 다양하네. 아저씨 사정도 지금 딱해 보이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아저씨...

양복남: 선생님, 딱지치기 해보셨죠? 저랑 딱지치기를 하셔서 한 번 이기실 때마다 10 만원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 딱지를 쳐서 넘기면 십만 원을 준다고?

양복남: 반대로 제가 이기면 저에게 십만 원을 주시면 됩니다. 선공을 양보하겠습니다.

기훈: 나 오늘 상태 많이 안 좋다. 지금 나한테 야바위 치는 거면 오늘 내 손에 진짜 죽어. 응? 정말 내가 먼저 친다.

양복남: 어떤 컬러로 하시겠습니까?
돈이 없으세요?

기훈: 돈이...

양복남: 그럼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기훈: 몸으로요?

아으! 너 이새끼 뭐야?

양복남: 뽀 한 대에 십만 원 까드립니다.

기훈: 한 판 더 해!

한 판 더!

봤지 봤지? 봤지, 내가 이겼어! 너 이리 와! 너 면상 이리 대! 이, 씨!

너 이거 안 놔? 이 새끼!

양복남: 십만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기훈: 아, 십만 원.

양복남: 선생님, 이런 거 며칠만 하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기훈: 아저씨, 이거 신종 피라미드 뭐 그런 거지? 사람 잘못 봤어. 나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 아냐.

양복남: 성기훈 씨, 오늘 신체포기 각서 쓰셨죠? 이름 성기훈. 47 세. 최종학력 대한공업고등학교. 전직 드래곤 모터스 조립 1 팀 직원. 10 년 전 구조조정 당시, 희망 퇴직 후 치킨집 분식집을 열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현재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음. 3 년 전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열 살 딸이 있음. 현재 채무액 사채 1 억 6 천, 은행대출 2 억 5 천 5 백.

기훈: 너 누구야? 너 뭘데 내 뒷조사를 해?

양복남: 빈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기훈: 아이 그래, 씨.

- 생선 가게 -

기훈: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 보니...

상우 엄마: 또 한잔 했어?

기훈: 아니에요. 아 근데 술을 안 마셨는데도 취한 거 같네. 흐흐흐흐. 나 오늘 돈 벌었거든요. 우하하하.

상우 엄마: 기훈이 너 아직도 노름하냐?

기훈: 아이, 노름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로 내 힘으로 번 거거든요.

상우 엄마: 근데 너 얼굴은 또 왜 그러냐? 너 이제 싸움질도 해?

기훈: 아이, 됐구요. 상우는 요즘 뭐 하나? 회사 잘 다녀요?

상우 엄마: 개는 맨날 바빠. 지금도 외국에 출장갔다.

기훈: 어이, 싸가지 없는 새끼. 상우 집에 오면 나한테 연락 좀 하라 그래요. 어머니도 알지? 그 새끼 서울대 붙은 거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데리고 다녔잖아. 근데 짜식 대학 가고, 취직하고.. 나한테 술을 한번 안 사.

상우 엄마: 쓸 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이거 가지고 얼른 집에 가! 또 술집으로 새지 말고.

기훈: 자, 잔돈은 됐어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

상우 엄마: 만이천 원이다 이 놈아.

기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

기훈: 으음...
배 고파? 응? 잠깐. 이거 먹어. 너 남기면 안된다. 이거 이 뺨 맞아서 번 돈으로 산 거야.
난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봐도 좋은 걸...

- 집 -

기훈: 자, 엄마 용돈 써! ㅋㅋㅋ, 아 받아!

엄마: 아이...

기훈: 야아.

엄마: 니 또 노름했나?

기훈: 아냐.

엄마: 그러문? 얼굴이 와 그 꼴인데? 아 와 말을 안 해?

기훈: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엄마: 너 너 어디서 이.. 남의 돈 훔쳤니?

기훈: 아, 노름도 아니고 훔친 것고 아니고..
내 손, 응? 내 얼굴, 내 몸뚱이로 진짜 죽도록 벌은 거라구. 아 정말.

엄마: 니 가영이 치킨은 사 먹었나?

기훈: 저녁도 사주구 선물도 하나 사주구 그러고 왔지.

엄마: 가영이가 니한테 별말 없더나?

기훈: 무슨 말?

엄마: 가영이 저그 어매랑 새 남편이랑 내년엔 뭐 다 미국으로 간다 카더라.

- 기훈 회상 -

기훈: 내년 생일에는 진짜 좋은 선물을 사줄께. 가영이 약속.

가영: 내년?

기훈: 미국?

엄마: 그래. 그 남자가 뭐 미국으로 직장을 옮겨가 저그들 식구 다같이 미국으로 들어간다대.

기훈: 그래?

엄마: 니 시방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내? 응? 너거 아는 찾아야 할 거 아이가?

기훈: 아, 애를 어떻게 찾아? 그때 도장 찍을 때 벌써 얘기 다 끝낸 건데.

엄마: 어휴. 요 위층에 저.. 법 좀 안다카는 총각이 그라는데, 애 아버지가 아를 키울 경제적인 그런 거만 응.. 된다고 보마는 아를 찾을 수 있다 카대. 응응.

가 미국으로 그양 들어가쁘믄, 한국말 다 까먹고 니랑은 말도 영영 안 통할 끼고 영영 남 돼 빠리는 기다. 응? 니 진짜로 가영이 안 보고 살 자신 있나?

- 전화 -

○△□: 안녕하십니까?

기훈: 아, 저.. 낮에 명함 받은 사람인데요.

○△□: 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 참가를 원하시면 귀하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 승합차 -

○△□: 성기훈씨?

기훈: 아, 예.

○△□: 암호는?

기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 아이.. 다들 피곤한가 보네요. 저.. 게임하는 데까지는 여기서 얼마나 걸릴까요?

- 456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홀 -

001 할아버지: 오십, 오십 이, 오십 오, 오십 육.

기훈: 영감님, 뭐 하시는 거예요?

001 할아버지: 아 말 시키지 말아 헛갈려. 오십 육...

기훈: 아 지금 몇 명 왔는지 사람 쪽수 세시는 거예요?

001 할아버지: 아 그래.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말어.
어.. 이.. 응응. 아, 이거 몇까지 셧더라?

기훈: 영감님, 저기 456 명 왔네요.

001 할아버지: 으흠...

기훈: 오.. 이야, 영감님 일등으로 오셨네. 나.. 어? 나 꼴찌네.

001 할아버지: 흠.. 나도 알아. 그냥 세 보는 거야. 의사가 그러는데 숫자 세는 거 치매에 좋대.

기훈: 아 치매 걱정할 나이에 어쩔라고 이런 데를 오셨어요?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순 밥 드시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손주들 재롱 떠는 거 보면서 등이나 지지고 계시지.

001 할아버지: 아 그러는 자네 부모님은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순 밥 드시고 사시나?

기훈: 으흠...

001 할아버지: 내가 얼마 안 남았어.

기훈: 네?

001 할아버지: 의사가 그러는데 내 이 머릿속에 흑이 생겼대.

기훈: 흑이요?

001 할아버지: 뇌종양.

장덕수: 씨발년.. 아하하하하하. 야!.. 야, 널 여기서 다 만나네.. 응? 이년 눈깔 봐라. 성질은 여전하네 응?
하긴 니가 몇 대 맞는다고 뭐 쫄 캐릭터는 아니지. 오갈 데 없는 년 먹여 주고, 재워 주고,
기술까지 가르쳐 줬더니 내 뒤통수를 쳐?

강새벽: 너한테 빚진 거보다 갚다 바친 게 더 많아.

장덕수: 그렇게 당당한 년이 왜 도망을 쳤을까?

강새벽: 도망이 아니라 독립한 거뿐이야.

장덕수: 푸웃 푸웃.. 흐흐흐흐.. 독립? 씨...
독립을 해? 니가 뭐 유관순이냐? 그럼 나가서 태극기라도 흔들든가. 아 맞다, 너 북한년이니까
인공기 흔들어야지 응?

기훈: 너 일루 와 봐! 응? 어? 어, 목에.. 여깁다. 너 맞네 소매치기. 너 이.. 씨..내 돈, 내 돈 내놔!
내 돈 어딴어? 내 돈 내놔! 이 씨!
아 씨, 뭐야?

장덕수: 너 뭐야?

기훈: 아.. 흐.

장덕수: 넌 뭐야? 이 새끼야.

기훈: 예, 저..저는 저 쌍문동 사는 성기훈인데요.

장덕수: 어이, 쌍문동 씨.

기훈: 네.

장덕수: 나 이년이랑 아직 얘기가 안 끝났는데.

기훈: 예. 죄송한데 저도 이 자매님이랑 급한 용건이 좀 있어서요.

장덕수: 너 이 새끼, 이년이랑 무슨 관계야?

기훈: 아하하.. 참.. 정말. 그러는 넌 무슨 관계신데요? 딱 얼굴 보니까 이런 애들 뒤에 숨어서 먹고 사는 양아치 같으신데. 니가 시켰냐 내 돈 훔쳐 오라고?

장덕수: 이 개새끼가.

기훈: 어 야.. 여기 깡패가 사람 죽여요. 어 어.. 어, 여기 빨리 좀 나와 보세요. 빨리 좀 나와.. 아 저기 나오시네. 아 여기 깡패랑 소매치기 있어요. 깡패랑 소매치기.. 깡...

진행 요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6 일간 모두 여섯 개의 게임에 참가하시게 됩니다. 여섯 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거액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118: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갑자기 마취시켜서 핸드폰, 지갑 다 뺏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끌어다 놓곤 갑자기 나타나서 게임 몇 개만 하면 거액을 준다? 그걸 지금 믿으라는 겁니까?

진행 요원□: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모셔 오는 과정은 보안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였을 뿐입니다. 게임이 끝나면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107: 근데 그런 가면은 왜 쓰고 있는 거죠?

진행 요원□: 진행 요원의 얼굴과 신상은 참가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공정한 진행과 비밀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218: 난 당신 말 하나도 못 믿겠는데. 유인, 납치, 감금. 온갖 불법 행위를 하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누군지도 밝히지 않는데 우리가 당신들 말을 믿어야 할 이유를 하나만 대 봐.

진행 요원□: 218 번, 조상우. 나이 46 세. 전직 기쁨증권 투자 2 팀 팀장. 고객 예치금을 무단으로 빼돌려 주식 파생상품과 선물 옵션에 투자했다가 실패. 현재 손실액 6 억 5 천만 원.
107 번 김미옥 채무 5 억 4 천. 118 번 오영욱 채무 10 억 2 천만 원. 322 번 정민태 채무 8 억 8 천.
119 번 노상훈 채무 13 억 9 천. 369 번 박주운 채무 9 억.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서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처음 여러분을 찾아 갔을 때도 여러분들은 저희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희 게임을 하고 여러분에게 약속된 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선 그런 저희를 믿고 모두 자발적으로 어떤 강압도 없이 이 게임에 자원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빗쟁이들에게 쫓기며 쓰레기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199: 우리 무슨 게임입니까?

진행 요원□: 모두에게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게임 정보는 사전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기훈: 아.. 저..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진행 요원□: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돼지 저금통에 상금이 적립될 겁니다. 상금의 액수는 첫 번째 게임이 끝나고 모두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 동의서 서명 -

기훈: 이게 단가요?

안내방송: 잠시 후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 야.. 뭐야? 장난 아니다. 와.. 씨발.. 존나 크다.

안내방송: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스마일!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스마일!

324: 아이, 씨.

250: 나와 병신아. 이.. 씨.

안내방송: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스마일!

- 엘리베이터 안 -

안내방송: 확인되었습니다.

- 운동장 -

기훈: 야, 상우야! 어우, 상우 맞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니가 여기 왜 있어? 며칠 전에 너네 가게 갔었는데 너네 엄마가 너 해외 출장 갔다고 하던데. 아 그러구 아까 그 소린 또 뭐야? 니가 빛이 있어? 아 쌍문동에 사는 서울대 조상우가?

안내방송: 첫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상우: 형, 다음에 얘기해.

안내방송: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운동장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운동장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벨 -

프론트맨: This is the Front Man speaking...

- 운동장 -

324: 야, 저거 저거. 저거 뭐냐? 존나 이상하게 생겼네. 아 씨발.. 대가리 존나 크다. ㅎㅎ.

안내방송: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118: 무궁화꽃?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

기훈: 그런 거 같은데요.

324: 무궁화.. 씨발 장난하나?

250: 뭐 이런 걸 시키냐?

324: 내기할래? 누가 먼저 골인하나.

250: 백만 원 빵. 콜?

324: 아, 씨발. 콜!

안내방송: 5 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안내방송: 324 번 탈락!

250: 병신, 걸렸네.

118: 방금 무슨 소리에요?

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250: 야, 너 탈락이야 병신아. 개쇼하지 말고 일어나!

안내방송: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 탈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상우: 형, 고개 돌리지 말고 들어! 그렇게 있으면 어차피 죽어. 내 생각에 저 인형이 동작 감지 장치야. 앞사람 등 뒤에 숨으면 감지되지 않아.

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상우: 시간 없어!

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장덕수: 누구냐? 아까부터.

강새벽: 니 뒤통수 친 년.

장덕수: 이런 쌍년이.

강새벽: 지금 한 대 더 쳐줄까 니 뒤통수.

장덕수: 하지 마, 하지 마. 제발.

강새벽: 떨지 마 병신아. 그러다 걸리면 죽어.

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18: 나 좀 살려주세요.

기훈: 이거 봐요.

118: 제발.. 제발.. 흐흐흐.

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Fly me to the moon...

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 흘 -

- 기훈: 상우야, 고맙다.
고마워요. 두 사람 덕에 살았어요.
- 알리: 살아서 다행입니다.
- 진행 요원□: 첫 번째 게임을 통과한 참가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첫 번째 게임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56 명 중에 255 명이 탈락하여 첫 번째 게임을 끝마친 참가자는 201 명입니다.
- 212: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돈 꼭 갚을게요. 꼬옥 갚을게요.. 선생님.. 제가요 애가 있거든요. 아직 이름도 못 지어서 출생 신고도 못했는데요. 저 좀 내보내 주세요.
- 209: 선생님,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어떻게든 갚을게요. 제발 살려주...
- 073: 저도요. 저도 그냥 나가고 싶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 남자: 살려주세요!
- 진행 요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해치거나 돈을 받아 내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 119: 기회? 이게 기회라구요? 애들 놀이를 시켜놓고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기회입니까?
- 271: 우리가 빚을 졌지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 진행 요원□: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
- 369: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게임이라고요?
- 진행 요원□: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어겨서 탈락했을 뿐입니다.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 066: 상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냥 내보내줘요.
- 진행 요원□: 동의서 제 1 항.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 119: 정말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경찰들이 여기 실종된 사람들 찾으러 금방 여기 찾아올 걸 아마.
- 066: 그래, 우리 안 풀어주면 핸드폰 위치 추적이라도 해서 여기로 찾아올 거야. 그럼 당신들도 끝장이라구.
- 322: 그래. 끝장이야.

진행 요원□: 동의서 제 2 항.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탈락으로 처리된다.

상우: 동의서 제 3 항.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게임은 중단된다. 맞습니까?

진행 요원□: 맞습니다.

상우: 그럼 투표를 하게 해주시죠. 그만 두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면 여기서 우릴 내보내 주는 겁니다.

진행 요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게임의 중단 여부를 투표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첫 번째 게임에서 적립된 상금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게임에서 탈락한 참가자의 숫자 255 명. 참가자 한 명당 걸려있는 상금 액수 1 억. 따라서 255 억의 상금이 돼지 저금통에 적립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게임을 포기하시면 저 255 억은 탈락한 참가자들의 유가족에게 각각 1 억 원씩 전달되고 여러분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212: 저기요, 근데 여섯 개 게임 다 통과하면 얼마를 주시나요?

진행 요원□: 참가자 456 명. 따라서 총 상금은 456 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면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게임의 속행을 원하시면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을, 중지를 원하시면 빨간색 엑스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분들은 가운데 흰 선의 반대편에 서주십시오. 투표는 여러분 가슴에 있는 번호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456 번, 투표해 주세요. 453 번, 투표해 주세요. 218 번.

119: 미친 거 아냐? 다들 이 짓을 계속하자는 거야 지금?

212: 해야지 그럼. 나가면 뭐가 달라? 어차피 나가도 생지옥이야 씨발 쫓.

322: 그래. 지금 그만 두면 탈락한 놈들만 좋은 일 해주는 거야. 그놈들만 1 억씩 받는대잖아. 게임을 이긴 건 우린데. 그게 말이 돼?

369: 제발, 아 제발 이러지들 좀 마세요. 집에 가야죠.

322: 난 어차피 집도 없어. 여기서 희망이라도 있지. 나가면 나..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남아서 끝까지 해봅시다! 난 나가서 개처럼 살다 죽느니 여기서 뭐라도 해보다 죽을 겁니다.

119: 야 이 새끼야, 죽을려면 너 혼자 죽어 이 새끼야. 다 끌어 들이지 말구 이 개새끼야.

진행 요원□: 지금부터 민주적인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시 투표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투표자입니다. 1 번.

- 기훈 회상 -

001 할아버지: 의사가 그러는데 내 머릿속에 흑이 생겼대. 뇌종양.

진행 요원□: 게임의 진행을 원하시면 동그라미, 중단을 원하시면 엑스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참가자들의 과반수가 게임 중단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번 게임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322: 아니 나갈 사람은 나가라 하구 남는 사람들끼리 계속하게 해줘요. 이미 반 이상 죽어 자빠졌는데 여기서 그만 두는 게 아니잖아!

212: 그래, 우리라도 계속하게 해줘요!

남자: 그래, 계속하세요!

진행 요원□: 이렇게 여러분과 헤어지게 돼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을 위한 기회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수가 게임의 재개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게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 서울 시내 (눈 가리고 손발 묶인 채 풀려남) -

기훈: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강새벽: 조용히 좀 해!

기훈: 아..아.. 누구세요? 소매치기. 소매치기? 소매치기 너냐?

강새벽: 밤새 여기 누워있을 거 아니면 이거 좀 풀어봐.

기훈: 여기가 어디...

자 나도 빨리 좀.. 자, 응?

어 너.. 아 그래. 너부터 빨리 입어. 그래 चु지? 나도 चु다 진짜. 어우, 어이구 아이구.

아 그래 빨리 입어. 아이구. 아.. 아우 다리야. 야, 야 이제 나 좀 빨리 풀어줘. 어? 야.

야! 야! 너 뭐하는 거야? 나 풀어주고 가야지.

강새벽: 내가 왜?

기훈: 내가 너 풀어줬으니까.

강새벽: 그 나이에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당신 풀어주면 돈 내놓으라고 나한테 뭐라고 할 거잖아.

기훈: 아 그건 그거구. 알았어 알았어. 돈 달란 소리 안 할 테니까 이거나 좀 빨리 풀어줘.

강새벽: 진짜야?

기훈: 응, 내가 절대 돈 달란 얘기 안 할게.

강새벽: 어떻게 믿어?

기훈: 아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걸고 맹세한다, 빨리 풀어줘!

아이 추워.. 아이 씨발. 아 아 아우 아파.

기훈: 이 씨.. 너, 이 씨.. 너 이리 와! 내 돈 내 돈 내봐. 내 돈 내봐 응 내 돈. 이 씨 내 돈 안 내봐?
내 돈 줘! 이 씨 아우.. 씨 내 돈 줘 씨.

강새벽: 아저씨 엄마 참 불쌍하다.

기훈: 너, 이 씨. 너 거기 잠깐만 가만 있어봐!
너..너.. 너 거기 안 서? 아우.. 씨.

- 서울 시내 -

알리: 사장님, 여기 어디예요?

상우: 여의도.

알리: 여의도가 어디예요?

상우: 서울 한가운데요.

알리: 사장님, 전화 있어요? 전화 한 번만 하고 싶어요. 딱 한 번만요.

- 편의점 -

직원: 2 천 원입니다.

알리: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상우: 저기요. 차비는 있어요?

알리: 네?

상우: 집이 안산이라면서요. 사발면 값도 없는데 집에 갈 돈 있냐고요. 돈.

알리: 돈 없어요. 걸어가요.

상우: 여기서 안산까지 걸어서?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가요.

알리: 안 돼요. 나 돈 없어요. 돈 못 갚아요.

상우: 갚으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가지고 가요.

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상우: 나 사장님 아니니까 사장님 소리 좀 그만 하고.

알리: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파출소 -

기훈: 경찰관님,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잘 이해 못 하시는 거 같은데요.

경찰관 1: 저 선생님,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수백 명을 운동장에 모아 놓고 게임을 하라고 하고 총으로 막 쏘 죽였다 그거죠?

기훈: 예! 이게 한두 명도 아니구요. 2 백 명이 넘게 그냥 막 쏘 죽였다니까요.

경찰관 1: 그 게임이 뭐라고요?

기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요.

경찰관 1: 그.. 애들이 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기훈: 예.

경찰관 1: 어른들한테 그걸 시켰다는 거죠?

기훈: 아 그렇다니까요.

경찰관 1: 그래서 걸리면 총으로 막 쏘 죽였고요.

기훈: 아 몇 번이나 말합니까.

경찰관 2: 아저씨, 그래서 거기가 어디예요? 그 사람들 죽였다는 데가.

기훈: 그건 제가 마취를 당하고 끌려가 가지구 어딘지 모른다니까요.

경찰관 2: 그럼 그거 시킨 사람들은요?

기훈: 개네들은 다 마스크를 써 가지구. 가면을...

경찰관 2: 그럼 아저씨는 거기서 어떻게 나왔어요?

기훈: 이게 게임을 하던 사람들끼리 투표를 해 가지구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경찰관 2: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우리 나가고 싶어요' 했더니 살인자들이 '그래요 나가세요'라고 했다?

기훈: 예.

경찰관 2: 하하하하.

경찰관 1: 거긴 처음에 왜 가신 건데요?

기훈: 그게 게임을 하면 돈을 준다고 해서.

경찰관 2: 돈이요?

기훈: 네, 수백억을 준다고 해서.

경찰관 1: 자,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종합해 보면 누가 갑자기 게임을 하면 수백억을 준다고 해서 따라 갔더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시키고 그래서 걸리면 막 싸죽이더라. 그런데 선생님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게 됐고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른다. 이..이..이거 맞죠?

기훈: 예.

경찰관 1: 저..성함이?

기훈: 저 여기 쌍문동 사는 성기훈인데.

경찰관 1: 성기훈 씨, 저 혹시 보호자 있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의료기관 쪽에 연락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요.

기훈: 나 여기 세금 내고 사는 쌍문동 주인이야. 사람 어떻게 보고. 이게 그놈들이 준 명함이니까 여기로 전화해 보면 될 거 아냐 씨.

여자: 여보세요.

경찰관 1: 아..아.. 아 예. 그..아침부터 그..실례합니다. 그..뭐 좀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여자: 누구세요?

경찰관 1: 아 예. 아..아 죄..죄송한데요. 혹시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습니까?

여자: 게임요?

경찰관 1: 아 예. 제가 게임을 좀 하거든요.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여자: 저기요, 너 뭐 하는 분이신데 아침부터 전화로 개소리세요?
게임을 하고 싶으면 혼자 PC 방에 가! 이 변태 새끼야!

기훈: 잘못 눌러서 그런 거잖아. 아 밀지 마.

경찰관 2: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세요.

기훈: 당신 전화 제대로 한 거 맞아? 번호 잘못 누른 거 아냐?
딱 기다려! 내가 걸어서 당신 바꿔줄 테니까. 내 핸드폰에 저번에 걸었던 번호 그대로 남아 있거든 이.. 씨.

안내 멘트: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호: 뭐예요? 취객이에요?

경찰관 1: 그냥 미친놈이야. 오늘따라 정신없어 죽겠어 아주.
정신 차려. 여기 계속 올 거야?

황준호: 들어갑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 집 -

기훈: 엄마. 나 왔어요. 엄마. 뭐야?

안내 멘트: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

기훈: 응? 아 이 노인네 어디 간 거야 문을 다 열어놓고.

- 시장 -

기훈: 상우야! 너 여기서 뭐 하나?

너 빗 땀에 그래? 야, 쌍문동의 자랑, 쌍문동이 낳고 기른 천재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입학 조상우가 뭐가 걱정이야? 다시 벌면 되지. 엄마한테 가서 다 말씀드리고 새로 시작해.

상우: 다시 벌어? 60 억을?

기훈: 60 억? 아 6 억이라며.

상우: 그놈들도 모르는 게 있어.

기훈: 아이 너 증권회사 다니다더니 주식을 한 거야?

상우: 주식은 그렇게 크지 않고 선물을 했어.

기훈: 선물? 선물로 그 돈을 써? 아 누구 선물을 얼마나 비싼 걸 산 거야? 여자 생겼냐?

상우: 그런 선물이 아니고. 그런 게 있어.

기훈: 아..참. 아..이 그냥 개인 파산 신청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그거 하면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거 같은데.

상우: 내 거 말고 어머니 거까지 다 들어갔어. 집이랑 엄마 가게까지 다.

기훈: 여보세요. 네, 전데요. 예?

- 병원 -

의사: 당합니다. 오래 방치해서 합병증까지 왔어요. 이 정도면 통증이 심했을 텐데 모르셨어요?

기훈: 치료만 하면 되는 거죠?

의사: 최악의 경우엔 수술로 발을 절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입원부터 하시고 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 보시죠.

기훈: 엄마. 엄마! 아 엄마, 어딜 가? 입원하라잖아.

엄마: 아, 괜찮아.

기훈: 뭐가 괜찮아? 아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면서.

엄마: 아 치아라 고마. 몇날 며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돌아 댕기다가 인제 나타나가 뭐 효자 행세해?

기훈: 엄마 진짜 미련하게 왜 이래? 치료 안 받으면 큰일 난다잖아.

엄마: 그러믄 내 그양 이래 누워 있으면 월세는 누가 낼끼가? 그카고 너, 하루 병원 입원한 값하고 약값하고 얼맨 줄은 알아?

기훈: 아 보험 있잖아 보험.

엄마: 뭐라꼬? 보험? 니 기억 안 나나? 그거 벌써 해제해가 다 써버렸잖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래이 아이고.

기훈아, 아..이 엄마 피곤하다. 힘들어가 인자 고마하고 싶다. 고마하재이.

기훈: 에이 씨. 내 돈 가져오께. 내 돈 가져오면 될 거 아냐.

- 자동차 안 -

황준호: 네, 어머니. 아 지금 고시원에 가는 중이에요. 아이 별일 없을 거예요. 형 가끔 그러잖아요. 연락도 잘 안 받고. 예, 제가 형 있는 데 알만한 사람 여기 저기 전화도 해보고 그래도 연락 안 되면 제가 내일 직접 실종 신고 할게요. 아 저 대한민국 경찰이에요. 형 제가 찾을게요. 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고시원 -

황준호: 형이 안 들어온지 정확히 얼마나 됐죠?

고시원 주인: 그게 내가 매일 체크하는 게 아니라.. 고시원비 내는 날짜가 일 주일 전이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매일 와봤었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저..근데 고시원비는..? 아님 지금 짐을 빼 주셔야 되는데.

황준호: 제가 보고 나서 고시원비는 따로 드릴게요.

고시원 주인: 실컷 보세요 그럼.

- 파출소 일 회상 -

황준호: 취객이에요?

경찰관 1: 그냥 미친놈이야. 오늘따라 정신없어 죽겠어 아주.

- 보육원 -

수녀: 애들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와.

아이들: 와~ 맛있겠다.

강새벽: 왜? 너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매. 얼굴은 왜 그래 야. 친구들이랑 싸웠니?
너 계속 그렇게 말 안 하든 누나 그냥 간다.

동생: 나 여기 있기 싫다. 엄마 금방 데리고 온다매. 한 달만 있다가 엄마 오면 다같이 살 거라매.

강새벽: 철아, 그게...

동생: 애들이 다 거짓 푼대. 나 여기서 못 간대. 누나가 나 여기다 버린 거래.

강새벽: 아이다. 엄마 아버지 꼭 오실 거다. 누나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내년엔 우리 다같이 모여서 한 집에서 살게 될 거다. 누나 알제? 누나 약속하면 꼭 지키는 거.

- 파출소 -

경찰관 1: 아 아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황 형사가 그 미친놈 이름은 왜?

황준호: 아 그.. 제가 어제 얼핏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알던 사람 같아서요.

경찰관 1: 그래? 그 뭐더라? 쌍문동 사는 성..성...

경찰관 2: 성기훈이요. 쌍문동 사는 성기훈.

경찰관 1: 맞다 성기훈. 아는 사람 맞아?

황준호: 예, 맞는 거 같아요. 아..저.. 그 사람 주소 좀 따 주실 수 있어요?

- 공장 -

동료: 알리, 오랜만이다.

사장: 응, 알리!

알리: 왜 전화 안 받아요?

사장: 전화했어? 몰랐네. 왜? 무슨 일 있어?

알리: 사장님, 밀린 월급 주세요.

사장: 아휴. 야, 내 그거 몇 번 말하냐. 지금 돈이 없어. 너도 알다시피 회사 사정이...

알리: 저 손가락 치료 잘 못 받았어요. 병원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나 이제 고향 갈 거예요. 제발요. 돈 주세요!

사장: 야이, 씨. 밖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봐. 개들은 월급 받았는가. 수금이 돼야 돈을 주지 이 새끼야. 야, 나도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근데 병원엘 못 가 돈이 없어서.

알리: 사장님, 돈 준다고 했잖아요. 제발요 돈 주세요. 6 달도 더 지났잖아요.

사장: 아 이 새끼가 진짜.

야, 다음에 얘기하자. 내가 지금 바쁘다.

알리: 사장님, 돈 주세요!
사장님, 제발 돈 주세요!

사장: 어딜 만져 개새끼야, 확 씨.

알리: 나한테 욕하지 마!

사장: 이 씨발 새끼가!

알리: 여기 돈 있잖아!

사장: 개새끼가 뒤져?

알리: 돈 있잖아.

사장: 안 놔? 이새끼야.

알리: 아, 내 돈 좀...

사장: 아아아...

- 새터민 결혼 전문업체 -

업자: 니 사정은 내 아주 잘 알디면서도 고저 그게 맘 묵고 튼 브로커들을 찾을 방법이 없다.
당한 사람이 너뿐이 아니야. 몇 사람은 고것들 잡갔다고 탄동까지 직접 갔다가 오히려 공안한테
걸려서 북으로 다시 끌려갈 뻔했어.

강새벽: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업자: 다시 다른 브로커를 고용해야디. 근데 그게 니도 알갔지만 또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니.

강새벽: 얼마데요?

업자: 일단 니네 부모 소재 파악부터 다시 해야 되고. 요즘 그 국경 경비가 살벌해져서
강 건너가는 비용도 마이 올랐고...

강새벽: 그래서 얼마데?

업자: 최소한 4 천 이상은 있어야...

강새벽: 4 천...

업자: 중국으로 가는 비용만 그렇고 거기서 다시 남조선으로...
아아 앓, 뜨거! 아 뜨거.

강새벽: 전번에도 니 말만 믿고 돈을 보냈어. 내 목숨 걸고 구한 돈이었어.

업자: 야, 나도 몰랐다 응? 그 새끼들이 돈만 받고 날을 줄은 진짜 몰랐다. 맹세해.

강새벽: 돈 구해 온다. 한 번 더 나 속이면 다음엔 무조건 니 목부터 딸 거야. 알았니?

업자: 으으으.

- 생선 가게 (전화 통화) -

상우 엄마: 너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상우: 응. 잘 챙겨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

상우 엄마: 아이 너 미국 음식 같은 거 입에 잘 안 맞을 텐데. 너 뭐 먹어?

상우: 아니 엄마, 여기도 한국 식당 많아.

상우 엄마: 어 그래? 아 다행이네. 언제 돌아 와?

상우: 으음.. 일이 길어져서 아직 잘 모르겠어. 좀 걸릴 거 같애.

상우 엄마: 아이 그래. 우리 아들 힘들겠네.

상우: 엄마.

상우 엄마: 응. 왜?

손님: 아줌마, 물오징어 데쳐 먹을 걸루 세 마리만 주세요.

상우 엄마: 아 예, 자..잠깐만요.

상우야, 손님 왔다. 너 올 때 뭐 사오지 말어 응? 엄마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알았지?

상우: 알았어.

상우 엄마: 그래 끼니 거르지 말구.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우리 아들 그만 들어가 응. 사랑해 아들.
물오징어요?

아휴, 애는 외국에만 나가면 엄마 준다고 그렇게 자꾸 뭘 사가지고 와 참.

손님: 아드님이 효자신가 봐요.

상우 엄마: 서울대 나왔어요. 경영학과.

손님: 어머, 서울대 경영학과요? 머리도 좋은데 인물도 좋네. 결혼은 했어요?

상우 엄마: 아직 안 갔어요.

손님: 올해 몇 살인데? 내가 중매 좀 설까요?

상우 엄마: 아 근데 우리 아들이 눈이 좀 높아.

형사: 실례합니다. 혹시 조상우 씨 어머니 되십니까?

상우 엄마: 예, 조상우 우리 아들 맞는데요.

형사: 조상우 씨 지금 어딿습니까?

상우 엄마: 미국 출장 갔는데요. 왜 그러세요?

형사: 어.. 경찰입니다. 어.. 조상우 씨께서 횡령과 사문서 위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상우 엄마: 예? 누굴 체포해요?

아이 형사님들, 저 뭔가 착오가 있는가 본데, 저 우리 아들은 뭘 잘못하고 그럴 애가 아니에요.

형사: 네. 아드님하고 연락되시면은 경찰서로 자진출두하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이 계속 도주하시면 나중에 재판에서도 불리해집니다.

- 모텔 (번개탄 피워 자살하려고 투숙) -

상우: 누구시죠?

- 힐링호프 (기훈 친구 가게) -

기훈 친구: 내가 돈이 어딿냐?

기훈: 3 백만 좀 어떻게 해줘. 내가 두 달 안에 갚을게.

기훈 친구: 친구끼리 돈 얘기하는 거 아냐. 너나 나나 사정 뻔히 알면서 그래.

기훈: 아, 알지. 아 오죽하면 알면서도 이러겠냐 응? 내가 안 되면 여기서 배달이라도 하께.

기훈 친구: 아 무슨 배달이야 이 양반아. 안에 좀 봐봐. 여기 월세 내기도 힘들어.

기훈: 아 그럼 딱 한 달만 쓰고 줄게 응? 아 내가 대리에 배달까지 뛰면 한 달이면 갚을 수 있어.
야, 우리 엄마 병원에서 당장 수술하라는데 아 정말.

기훈 친구 처: 자기야, 이제 그만 들어오지.

기훈 친구: 들어갈게.

기훈 친구 처: 아 당장 들어오라구!

담배 끄구!

기훈: 안녕하세요.

기훈 친구 처: 기훈 씨.

기훈: 예?

기훈 친구 처: 남의 가게 앞에서 담배 피시면 안 되죠.

기훈: 아, 예.

- 편의점 -

001 할아버지: 어어, 자네...

기훈: 어, 영감님.

001 할아버지: 맞지? 456 번.

기훈: 아 예, 맞습니다.

001 할아버지: 아니 근데 자네가 여기는 어떻게...

기훈: 아, 저 이 동네에 살거든요.

001 할아버지: 아 하. 허허허.

기훈: 어..이.. 영감님도 이 동네 사세요?

001 할아버지: 아냐, 이 근처에 아는 사람이 있어. 허허허 이거 내가 당장 오갈 데가 없어서 잠깐 신세를 지고 있어. 허허허허. 어이구.

기훈: 아이.. 잠깐 앉으시겠어요?

001 할아버지: 응.

기훈: 어허. 영감님을 여기서 다 뵈네요.

001 할아버지: 그러게 말이야. 이 우리가 인연이 있나 보네.

기훈: 아, 한잔 하시겠어요?

001 할아버지: 응, 그래.

기훈: 아, 아 여기 괜찮으세요? 술 드셔도 돼요?

001 할아버지: 응, 괜찮아.

기훈: 아 이거 안주가 없어서 어떡하죠?

001 할아버지: 잠깐!

기훈: 어어어어. 아 영감님 괜찮으세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001 할아버지: 아니.

나 다시 가기로 했어.

기훈: 어딜요? 거기를요?

001 할아버지: 어차피 얼마 못 살 텐데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가고 싶지 않아.

혹시 알아? 거기서 내가 1 등 할지. 그때 그 무궁화꽃도 자네보다 내가 먼저 들어왔어.

기훈: 아이 그래도 거기는...

001 할아버지: 밖에 나와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더라구. 여기가 더 지옥이야. 흐흐.

- 놀이동산 (마이랜드) 앞 -

덕수 조폭: 덕수 형님!

장덕수: 왜 이렇게 늦어?

덕수 조폭: 아 막 나오는데 업소에서 팔라된 손님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아시잖아요. 아, 이 불금만 되면 그 개진상들 막 튀어 나오는 거.

장덕수: 돈은?

덕수 조폭: 급해서 일단 이거밖에 못 구했어요. 주말 지나고 수금 끝나면 더 드릴게요.
아 근데 지금 회장님께서 형님 찾는다고 인천이고 일산에 그쪽 애들 짝 풀었다는데,
그동안 어디 숨어 계셨어요?

장덕수: 그건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차 가지고 왔지?

덕수 조폭: 예. 이쪽이에요.
이게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초대장이라고요?

장덕수: 그래. 그놈들이 어제 보낸 거야. 곧 다시 시작할 모양이야.
그러니까 니가 화요일까지 애들을 끌어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아놔. 총도 몇 자루 구해 놓고.

덕수 조폭: 총요?

장덕수: 그놈들 총이 있어. 근데 픽업은 한 놈이 나와. 그 가면 쓴 새끼를 잡아조져 가지구
이 새끼들 금고 있는 데를 쳐들어 가는 거야.

덕수 조폭: 그게 형님 말씀이 다 사실이라고 쳐도...

장덕수: 개새끼야, 사실이라고 치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니까.

덕수 조폭: 죄송합니다.

장덕수: 그 새끼들 돈을 돼지 저금통에 몇백억씩 쌓아놓고 있는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 뒤통수만
제대로 치면 업소에서 팔라된 년놈들 꼬장이나 받아 주면서 먹고 사는 일 곳바이 하고.

덕수 조폭: 근데 형님, 애들이 지금 회장님하고 돈 문제로 형님이 잠수 타신 거
인천 바닥에 소문이 짝 퍼져서 아~ 애들한테 말빨이 지금 안 서는데.

장덕수: 야 이 개새끼야, 여기 털어 가지고 내가 그거 다 갚는다구.

덕수 조폭: 형님, 근데 필리핀 카지노서는 얼마나 날리신 거예요?

장덕수: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덕수 조폭: 형님, 그니까 그 좀 적당히 좀 하시지.

장덕수: 이 새끼가 미쳤나 이 씨.
덕수 조폭: 덕수야.
장덕수: 덕수?
덕수 조폭: 병신. 필리핀 전기 빠는 애들이 니가 빌린 돈 대신에 니 간, 콩팥, 눈깔로 받아 간다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하하하하. 넌 좃됐어 이 병신 새끼야. 하하하하 하하하.
아아아아~
장덕수: 하이,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파이팅 덕수! 컴온! 와봐 이 씨발.

- 이혼한 전처의 집 -

기훈 전처: 돈?
기훈: 응.
기훈 전처: 얼마나?
기훈: 한 2 백 정도.
기훈 전처: 2 백만 원?
기훈: 응.
기훈 전처: 당신 진짜 너무 한다고 생각 안 해?
당신이 뭐 나한테 위자료를 줬어? 아니면 애들 양육비를 한번 준 적 있어?
그래 놓고 어떻게 나한테 또 손을 벌려?
기훈: 하, 미안해. 엄마 병원비 때문에 그래.
기훈 전처: 어디가 아프신데?
기훈: 당뇨가 심해서.. 수술까지 해야 된대.
기훈 전처: 돈 없어. 우리 살기도 빠듯해.
기훈: 부탁 좀 하자. 올 엄마가 그래도 너한테는 잘해 줬잖아.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까지 왔겠니?
내가.. 꼭 갚을게.
기훈 전처: 그럴 돈 없어. 나도 애들 아빠한테 생활비 타서 써.
기훈: 아 그럼 그 사람한테 좀...
기훈 전처: 미쳤어? 야, 내가 뭐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달렐까? 응?
가! 가!
기훈: 야...

기훈 전처: 애들 아빠 올 시간 됐어. 가! 가!

기훈: 야, 너 자꾸 왜 근데 그 인간이 애들 아빠야? 가영이 아빠는 나야.

기훈 전처: 뭐? 아빠 뭐? 너 애한테 뭐 해줬는데? 너 그럴 자격 있다고 생각해?
너, 가영이 낳던 날 내 옆에 있거나 했어?

기훈: 야, 그날은.. 아 너도 알잖아! 내가 갈 수가 없었다구! 동료가 쓰러졌는데.

기훈 전처: 나도 쓰러졌어!
그날 나 혼자 기다시피 해서 병원 갔어. 조금만 더 늦었으면 가영이 죽을 뻔 했어.

기훈: 그놈은 그날 죽었어! 내 눈 앞에서! 병원에도 못 가고 죽었다구!

가영 새아빠: 여보, 우리 왔어.

기훈 전처: 어, 일찍 왔네.

가영: 아빠.

가영 동생: 엄마~

기훈 전처: 요 앞에 지나다가 가영이 불라고 잠깐 들렀대.

기훈: 뭐.. 가영이 봤으니까 나 가게.

가영 새아빠: 가시게요?

기훈: 아..예, 제가 급한 미팅이 있어서요. 가영아, 아빠 가게. 아빠 또 오께.

가영: 응.

가영 새아빠: 문을 이렇게..
저 사람 또 왜 왔대? 왜 집 안까지 들어오게 해?

기훈 전처: 미안해. 마트 갔다 오는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아파트 밖 -

가영 새아빠: 저기요.

기훈: 뭐죠?

가영 새아빠: 돈 필요하다면서요?

기훈: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가영 새아빠: 안 갚으셔도 됩니다. 대신 우리 가족 앞에 다신 안 나타나 주셨으면 합니다. 가영이가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제 미국으로 떠나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불쑥 나타나...

기훈: 이 새끼가 씨!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가영: 아빠.

- 기훈 집 앞 -

황준호: 성기훈 씨?

기훈: 네?

황준호: 도봉서 황준호입니다. 얼마 전에 신고하러 지구대에 오셨죠. 사람들을 납치해서 게임을 시키는 곳이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죽였다고.

기훈: 아 그거 그냥 지어낸 얘깁니다. 술 먹고 심심해서 그냥 지어낸 거예요.

황준호: 성기훈 씨가 가지고 있던 명함 저희 형도 가지고 있었어요. 형은 지금 실종 상태구요.

기훈: 아 저는 그냥 길에 떨어져 있길래 그냥 주워서 넣고 다닌 거 뿐이에요.

황준호: 성기훈 씨, 도와 주십시오. 저희 형 찾아야 합니다.

기훈: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누굴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 선박 위 -

가면□ 1: 시작해!

가면□ 2: 인원 점검!

가면△: 거기!

황준호: 저 배멀미 때문에...

가면□: 규칙을 잊었나? 상급자의 허가 없이 먼저 말하지 않는다. 선실로 올라가서 대기해!

- 홀 -

기훈: 영감님. 영감님! 영감님!

001 할아버지: 어...

기훈: 아휴, 정신이 드세요?

001 할아버지: 자네.. 456 번.

기훈: 예예. 아이, 영영 가시는 줄 알았네.

001 할아버지: 나 그렇게 쉽게 안 죽어.

기훈: 아, 그럼요. 영감님 덕분에 나갔다가 영감님 때문에 들어왔는데 먼저 가시면 안되죠.

001 할아버지: 많이들 돌아왔네.

기훈: 그러게요. 다들 힘들었나 봐요. 어휴. 야아, 그.. 애 이름도 못 지었다는 여자도 들어왔네요.

001 할아버지: 그러게. 애 이름은 짓고 왔나?

기훈: 아이고.

상우: 기훈이 형.

기훈: 오, 상우야.

상우: 왔어? 안 올 줄 알았는데.

기훈: 쫓.. 아이.. 그렇게 됐다. 너는? 엄마 보고 온 거야?

알리: 사장님들.

기훈: 오오. 아..이.. 생명의 은인.

알리: 사장님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날 차비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훈: 니가 이 친구 차비를 줬어?

상우: 여의도에서 안산까지 걸어서 간다길래.

기훈: 차하하하하, 훈훈하구먼. 우리 이거 뭐 훈련소 동기들 그런 느낌인가?

알리: 훈련소가 뭐예요?

기훈: 군대 알아요 군대? 총 쏘고 막 훈련하는 데?

알리: 아, 군인들 같이 사는 곳?

기훈: 그래요. 아, 잠깐만.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군대처럼 우리끼리 한번 뭉쳐서 해보는 건 어때?

상우: 맞아. 앞으로 무슨 게임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그룹을 형성하는 게 유리할 거야.

기훈: 아, 그쪽도 같이 합시다! 아,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구. 너도 봤지? 이 친구가 나를 완전한 손으로 들던데.

알리: 정말 나도 같이 해요?

기훈: 아, 그래요. 어.. 그쪽이 이등병 쫄따구, 애는 일 잘하는 상병, 나는 말년 병장.

알리: 감사합니다, 사장님.

상우: 그 사장님 소리는 좀 빼고.

001 할아버지: 저기.. 괜찮으면은 나도 좀 끼워주겠나?

기훈: 아이, 그럼요. 영감님이 군대에 평생 말뚝 박은 주임원사 하시면 되겠네.

001 할아버지: 고맙네.

기훈: 야, 이거 우리 팀구성이 아주 딱 맞게 떨어지네.

- 덕수 일당 -

장덕수: 내가 지나간 일은 다 잊고 받아줄 테니까 내 밑으로 들어와. 원래 우리 한팀으로 꽤 괜찮았잖아. 응?

강새벽: 아직도 허세냐? 밖에 너 잡으러 다니는 애들 짝 깔렸던데.

장덕수: 까불지 마. 니가 아무리 독해도 여기서 독고다리로 지랄해봤자 승산없어. 너 이거 안 보이냐? 가면 쓴 새끼들 죽은 놈들 침대 싹 다 빼버린 거. 아차하면 니 침대도 곧 아웃이야. 흐흐.

강새벽: 니 침대 걱정이나 해.

일당들: ㅋㅋㅋ...

강새벽: 아저씨들, 이새끼한테 붙지 마. 이새끼 밖에서 지 꼬봉들 주머니 털어서 지 배만 불린 새끼야. 그러다 결국 간 커져서 지 윗대가리 주머니까지 손댔다가 걸려서 이 꼴이 됐고. 이런 인간들을 우리 고향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혁명적인 개새끼.

일당들: 푸웃.. ㅋㅋㅋ...

장덕수: 이런 빨갱이 씨발년이.

212: 언니 오빠들! 말씀 중에 소리~

장덕수: 뭐냐?

212: 어머, 이 오빠 잘 생겼네. 오빠, 나도 좀 끼워주라.

장덕수: 어딜 꺼?

212: 오빠 팀에.

장덕수: 아줌마 뭐 잘하는데?

212: 못하는 거 빼고 다 잘하지. 삐쩍 골은 언니보다 훨 쓸만할 걸. 여러모로.

일당들: 오~

장덕수: 아줌마 그렇게 잘해? 함 하까? 침대도 비었는데.

일당들: 푸우.. 킬킬킬킬...

안내방송: 지금부터 식사시간입니다. 참가자들은 숙소 중앙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밥 먹고 하자.

안내방송: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식사시간입니다. 참가자들은 숙소 중앙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 푸.. 양아치 새끼. 흐 아이고.

- 프론트맨 방 -

가면□: 201 명 가운데 187 명이 돌아왔습니다. 재참가율은 93%입니다.

프론트맨: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동향을 보고해.

가면□: 네.

- 식사 시간 -

기훈: 음~

001 할아버지: 아휴, 옛날 생각나네.

기훈: 영감님도 이런 도시락 드셨어요?

001 할아버지: 그럼. 우리 마누라가 내 꺼랑 애들 꺼랑 아침마다 도시락 싸느라고 항상 바빴어.

기훈: 아우, 이거 밥이 차네. 아후.

야, 이 가운데 난로가 있으면 그냥 딱 데워 먹고 좋은데.. 상우야, 기억나냐? 우리 초등학교 교실에 조개탄 난로 있었잖아. 도시락 그 위에 깔아놓으면 엄청 뜨거워져 가지구 막 누룽지 생기고.. 응?

상우: 형, 그 옛날 생각할 시간 있으면 다음에 무슨 게임할지나 생각해봐.

기훈: 야, 그걸 생각한다고 아냐? 닥쳐봐야 아는 거지.

001 할아버지: 그 저 여태까지 한 걸로 보면은 옛날에 어린이들이 하던 놀이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

기훈: 아 뭐 그런 건데요. 그게 한두 가지도 아니구. 딱지치기, 다방구, 땅따먹기, 비석치기, 술래잡기, 돈가스, 얼음땀. 여자들은 공기놀이, 고무줄, 실뜨기.. 씬.. 또 뭐가 있나?

알리: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기훈: 거기 애들은 이런 게임 안 하나?

상우: 걱정하지 마. 애들 게임 규칙 단순해. 모르면 우리가 도와줄게.

알리: 감사합니다.

안내방송: 오늘의 일과가 모두 끝났습니다. 모든 일꾼들은 자신의 숙소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일과가 모두 끝났습니다. 모든 일꾼들은 자신의 숙소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실 가려고 소동 -

212: 야야야 문 열으라구, 이시키들아! 아, 오줌보 터질 거 같애~ 니들은 오줌도 안 싸냐? 화장실 좀 보내달라구우. 화장실만 잠깐 보내달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아이 그럼 여기 남자들 천진데 여기서 바닥에 싸? 야, 야 이 개새끼들아, 게임을 시키려면 최소한 사람 대접을 해주고 시켜야 될 거 아냐! 야 세모, 너 말고 니 위에 책임자 불러! 그 네모난 놈 부르라고 이시키야!

가면□: 정해진 시간 외에는 숙소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212: 씨발 그럼 내가 니들이 정한 시간에만 오줌이 마렵냐 응?
어쭈구리.. 이런 씨발것들. 니들 내가 못 쌀 거 같애? 이.. 씨. 야, 싨다. 야, 줄줄 자알 나온다.

가면△: 따라오시쥬.

212: 아흐.. 참, 조선놈들은 악을 써야지 그냥 꺽구멍이 열려. 아이 씨.

강새벽: 나도 가.

212: 뭐냐?.. 남이 죽으라고 변기 닦아놓으니까 그냥 널름 올라얏네. 야, 너 좀 거슬리는 스타일이야, 알어? 저 싸가지 없는.. 야!

- 화장실 -

212: 아.. 아.. 아.. 아흐.. 쓰읍 후- 후.. 달다, 씨발.
아이 깜짝이야, 씨.. 왜?
으흠.. 푸.. 흠.. 너도 한 모금 할래?

강새벽: 움직이지 말고 암전히 담배나 빨아.

212: 너 뭐 해?
너 지금 거기 들어가게?

강새벽: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게.
시간 좀 끌어쥬. 뭔가 알아내면 너도 알려줄 테니까.

212: 콜! 여기 밟아.
으.. 으.. 으...

아유, 변비가 사람 죽이네~ 아 아.. 내가 차라리 애를 낳고 말지. 사람 살려~ 아으 아.. 아으
나 죽네. 어.. 나온다.

가면△: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212: 잠깐만 있어봐~ 이제 거의 다 나왔어. 야 빨리 나와야겠다.. 빨리 나와야겠다.. 빨리 나와야겠네~

가면△: 돌아갈 시간입니다. 안 나오면 들어가겠습니다.

212: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 휴지.. 휴지가 없어. 씨.. 나 물로 씻고 나갈게. 너 들어오지
마! 거기 그대로 있어! 나 씻는다. 나 지금 밑에 아무것도 안 입었다. 아이.. 씨. 아아아 깨끗하게
잘 닦이네.

- 주방 -

가면□: 뭐 해? 계속 저어!

- 화장실 입구 -

가면△: 이제 나오세요!

212: 씨발 휴지가 없다니까~

가면△: 나오지 않으면 끌어내겠습니다.

212: 닭아야 나갈 거 아냐, 어?

야, 칸마다 휴지 체크하는 거 기본 아니냐?

그 네모난 새끼 오라 그래! 내가 컴플레인 좀 해야겠어, 씨.

뭘 봐? 이 개새끼야~ 와.. 씨.. 씨발 새끼, 야 이새끼야 너 내가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 너 이거 성추행이야. 야, 나 나가면 너 고소할 거야, 이 개새끼야.. 씨.
아이 씨.

- 홀 -

안내방송: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 숙소 -

황준호: 무인도, 납치, 감시, 그리고 가면들.

- 홀 -

212: 야, 뭐 봤어 응? 아, 뭐 봤냐구?

강새벽: 내일 얘기해.

212: 아, 뭘 또 내일 얘기해? 지금 얘기해.. 씨.

야, 뭐 봤냐구? 거기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 뭘 봤을 거 아냐? 응?

- 숙소 -

안내방송: 하루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10 분 후에 인원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 홀 -

안내방송: 지금부터 식사시간입니다. 참가자들은 숙소 중앙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 야, 너 뭐 봤어? 뭐 봤냐고? 아침에 말해준다며?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 봤을 거 아냐?

강새벽: 가면 쓴 놈들이 큰 술에 뭔가를 녹이고 있었어.
212: 뭘 녹여?
강새벽: 그건 잘 몰라.
212: 에이 씨, 나는 어제 너 살릴려고 그 생썬을 다 벌였는데.. 잘 모르겠어?
강새벽: 냄새가 났어.
212: 무슨 냄새?
강새벽: 설탕 냄새.
212: 설탕 냄새? 그니까 개들이 설탕을 막 이렇게 녹이고 있었다고?
강새벽: 그런 거 같애.
212: 너 진짜 그게 다야?
강새벽: (끄덕끄덕)
212: 하아, 너 보고도 말 안 하는 거 있으면 니 눈깔에 담배뽕 들어간다, 이 씨.
강새벽: (노려봄)
212: 배가 고프긴 하다. 단 게 좀 땡기네. 아.. 씨발 오늘은 맛탕이라도 주나?

- 숙소 -

안내방송: 인원 점검 중입니다. 그대로 문 앞에 대기해 주세요.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이동하세요.

- 홀 -

기훈: 쓰읍, 아.. 저.. 초코우유는 없나요? 제가 흰우유를 못 먹어서요. 어릴 때도 이 흰우유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제가 학교에서 우유 급식도 안 했거든요.
001 할아버지: ㅎㅎ..ㅎㅎㅎ ㅎㅎ.. 자네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겠어.
기훈: 어떻게 아세요?
001 할아버지: 우리 아들이 꼭 자네 같았거든. 어휴...
알리: 사장님, 그거 왜 안 먹어요?
상우: 너 먹어.
알리: 정말요?

상우: (끄덕끄덕) 나 원래 아침 안 먹어.

알리: 감사합니다, 사장님.

기훈: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입이 짧아.

이거도 마셔.

알리: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내방송: 잠시 후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진행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잠시 후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진행 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당신 뭔가 봤죠? 어젯밤에 어떤 여자랑 하는 얘기 들었어요. 얘기해봐요 뭐 봤는지.

강새벽: 내가 왜?

상우: 탈북자라면서요? 딱지치기, 무궁화꽃.. 이놈들이 시키는 게임들 다 내가 어렸을 때 하던 놀이예요. 다음 게임도 분명 그런 거일 확률이 높아요. 본 거 말해주면 내가 뭔지 알아낼 수도 있어요.

- 놀이터 (두 번째 게임하는 곳) -

기훈: 놀이터가 뭐가 이렇게 커? 뭘 시킬려고?

안내방송: 두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훈: 야, 뭘 것 같니? 응? 뽕뽕이에서 오래 버티기? 정글짐에서 떨어뜨리기? 응?

안내방송: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각자 앞에 보이는 모양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앞에 서주세요.

알리: 저거 뭐예요?

기훈: 동그라미, 삼각형, 별, 우산.

001 할아버지: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 상우 회상 -

상우: 본 거 말해주면 내가 뭔지 알아낼 수도 있어요.

강새벽: 설탕을 녹이고 있었어.

상우: 허억.

기훈: 상우야.

상우: 어?

기훈: 어떻게 할까?

상우: 글썸.

안내방송: 지금 즉시 하나를 선택해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하나를 선택해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우리 팀 다같이 움직일까?

상우: 그건 위험할 수도 있어. 아직 뭘 시킬지도 모르는데 다같이 한곳으로 갔다가 모두 불리해질지도 몰라.

기훈: 그런가?

상우: 투자에도 그런 말이 있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기훈: 아흐.. 영감님, 애가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입학.. 어릴 때부터 유명한 우리 동네 신동이었어요.

001 할아버지: 그래? 어이구 그.. 대단한 사람이네.

기훈: 아, 그럼요.
그럼 상우 말대로 일단 찢어져서 서로 짱을 좀 보죠. 응? 누가 어디로 갈까요?

상우: 내가 삼각형으로 가께.

기훈: 그럼 거기는?

알리: 다이라.

기훈: 응?

알리: 다이라

기훈: 아, 동그라미.

알리: 네. 우리 고향 달처럼 생겼어요.

기훈: 그럼 별이랑 우산이 남는데.

001 할아버지: 자네부터 골라.

기훈: 아, 그럴까요?
아 그럼 제가 우산 하죠 뭐.

상우: 응.. 우산? 왜?

기훈: 내가 어릴 때부터 우산을 잘 잃어버린다고 엄마한테 많이 혼났잖아.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망가진 우산만 줬어. 저도 짠 애들처럼 멀쩡한 우산 들고 다니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001 할아버지: 으흠.

기훈: 별 싫으세요? 저랑 바꿀까요 그럼?

001 할아버지: 아냐, 별.. 좋아. 요즘은 별 보기가 힘든 세상 아닌가?

기훈: 자, 다들 움직이죠. 무슨 게임인지 알게 되면 그때 다시 모여서 작전 짜고.

상우: 기훈이 형.

기훈: 응!

상우: 아냐.

안내방송: 선택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게임을 공개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은 앞에 있는 케이스를 하나씩 가져가세요. 참가자 여러분은 앞에 있는 케이스를 하나씩 가져가세요. 이제 케이스를 열어 안을 확인해 주세요.

알리: 동그라미?

안내방송: 두 번째 게임은 설탕 뽑기입니다. 선택하신 모양은 여러분이 뽑아야 할 모양입니다.

기훈: 좆됐다!

안내방송: 제한 시간은 10 분입니다. 10 분 안에 주어진 모양을 깨끗이 잘라내면 통과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369: 흑.. 흑흑.. 제.. 한번만.. 제발 한번만 더...

269: 흑흑.. 흑흑.. 흑.. 아뇨.. 아뇨.. 잘못했어요. 아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내방송: 111 번, 성공.
67 번, 성공.

알리: 또또또..똥그라미. 똥그라미.

안내방송: 199 번 성공, 210 번 성공, 224 번 성공, 246 번 성공, 73 번 성공.

가면□: 29 번!

안내방송: 72 번, 성공.

황준호: 네.

가면□: 오늘 임무가 뭐지?

안내방송: 34 번, 성공.

황준호: 제 임무는...

가면□: 29 번의 임무는 탈락자 운반이야. 왜 벌써 들어왔지?
황준호: 죄송합니다.
안내방송: 44 번, 성공.
황준호: 착각했습니다.
가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대기해. 뭘 착각했는지 그때 들어보지.
안내방송: 32 번, 성공.

- 흘 -

가면△: 왼쪽.

- 놀이터 -

안내방송: 122 번 성공, 29 번 성공, 218 번 성공, 357 번 성공, 83 번 성공.
기훈: 녹았어!
이거야. 뒤에서 녹이면 돼. 경계선이 더 얇아서 먼저 녹을 거야.
안내방송: 212 번 성공, 196 번 성공, 244 번 성공, 69 번 성공, 70 번 성공.
456 번 성공.
안내방송: 두 번째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성공한 참가자는 지금 즉시 놀이터를 떠나주세요.
가면△: 손을 치우세요.
119: 야 이 개새끼들아. 이런 씨발, 이런 좆같은 게임이 어딴어? 누구는 왜 좋은 거 뽑고, 누구는 왜 안 좋은 거 뽑아야 돼? 가까이 오지 마, 이 씨발놈들아. 이새끼 확 죽여버릴 거니까. 진짜 죽여버릴 거야.
가..가.. 가면 벗어! 빨리 벗어 씨.
뒤..뒤..뒤.. 뒤로 돌아.
너같이 어린 놈이.. 왜 이렇게 된 거야?
프론트맨: 명심해.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면 죽는다.

- 황준호 회상 -

가면△: 29 번, 끝날 때까지 여기서 대기해. 뭘 착각했는지 그때 들어보지.